

미야지마 역사 민속 자료관

미야지마 역사 민속 자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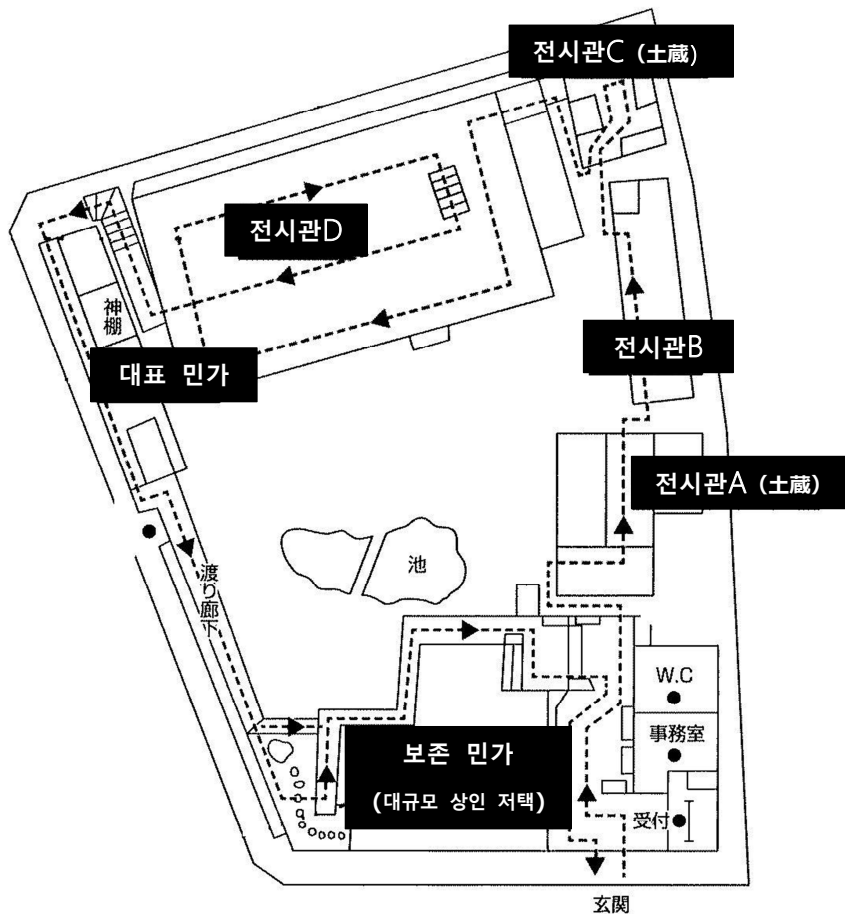
이쓰쿠시마 신사 출구 방향의 주요 관광 코스에서 다소 벗어난 장소에 위치해 있는 미야지마 역사 민속 자료관은 방문할 가치가 높은 자료관입니다. 독자적인 문화를 키워온 미야지마 섬의 역사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료관은 부유한 상인들의 생활상을 당시의 모습 그대로 간직한 19세기 초의 보존 민가와 미야지마 섬의 일반 민가, 몇 개의 전시관 등 여러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느껴지는 다채로운 공예품과 기록 문헌, 미술품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주로 에도 시대(1603-1868) 이후 미야지마 섬에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시관에서는 미야지마 섬의 지리와 연중 행사, 전통 목공예, 교토 귀족과의 관계 등 미야지마 섬에 대해 폭넓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시관 D에서 상영하는 영상은 꼭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자막과 함께 드라마틱한 미야지마 섬의 역사를 영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시품을 한차례 둘러본 후, 국가 등록유형문화재인 보존 민가의 다다미 방에서 한숨 돌리면서 자료관 건물에 둘러싸인 작은 안뜰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개관 시간: 9:00~17:00 (입장은 16:30까지)

휴관일: 월요일(공휴일 및 대체 휴일인 경우 다음 날), 연말연시(12월 26일~12월 31일)

입장료: 성인 300엔, 고등학생 170엔, 초·중학생 이하 무료.



미야지마 역사 민속 자료관: 보존 민가(대규모 상인 저택)

미야지마 역사 민속 자료관 중 하나인 보존 민가는 2층 건물로 과거 미야지마 섬에서 가장 호화로운 저택 중 하나였습니다. 1800년대 초에 지어진 본 가옥은 간장 양조로 재산을 축적한 거상 에가미 가문의 저택이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8) 후기, 미야지마 섬에 살았던 거상의 삶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넓은 현관에 들어서면 왼쪽에는 다다미 방이 있습니다. 다다미 방의 바닥은 현관 바닥보다 상당히 높게 지어져 있는데, 이처럼 간소하면서도 기능성을 갖춘 공간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방은 더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는데, 벽에 족자나 미술품을 장식한 방도 있습니다. 또한, 가옥 중앙 천장에 수평으로 뻗어 있는 굵은 대들보에서도 가문의 부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굵은 대들보는 한 그루의 소나무를 통으로 잘라 사용한 것으로 당시에는 매우 가격이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 관람을 마친 후에는 안뜰에 면한 방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초, 에가미 가문이 간장 사업을 그만둔 후 이곳을 료칸 사업자가 별장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안뜰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원에 있는 연못에서는 잉어를 볼 수 있는데, 4월부터 10월까지 잉어에게 먹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전시품



대규모 상인 저택

미야지마 역사 민속 자료관: 전시관 A

에가미 가문의 흙벽 창고를 그대로 사용하여 조성된 전시관 A에서는 미야지마 섬의 일상 생활에서 사용된 다양한 도구들을 전시합니다. 보존 민가와 인접한 전시관 A의 내부는 석조 바닥과 매우 두꺼운 벽, 화재에 내성이 있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중요한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용도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향아리, 가마솥, 버섯 채집용 바구니, 톱, 다양한 농기구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톱은 그 지역 나무꾼들이 사용하던 것입니다. 에도 시대(1603-1868)에는 나무꾼들이 나무를 잘못 베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히로시마 번의 다이묘가 미야지마 섬의 숲을 소유하면서 섬에서의 벌목은 엄격히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나무를 베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미야지마 섬은 섬이 특별 명승 및 특별 사적,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오늘날에도 벌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시된 도구들을 보면 농기구의 수가 톱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메이지 시대(1868-1912)까지 미야지마 섬에서 농사가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섬 자체가 신이 머물고 있는 땅으로서 숭배의 대상이었기에 토지 경작을 금기로 여겼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수 세기에 걸친 농사 금지가 해제되었지만, 이후에도 농업은 크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의 밭이 개척되었지만, 사슴과 멧돼지에 의한 피해로 농업 관계자들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전시관 A 일상 생활의 도구

미야지마 역사 민속 자료관: 전시관 B

두 번째 전시관 B에서는 수 세기에 걸쳐 미야지마 섬 주민들이 소중히 계승해온 여러 연중행사와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축제는 이쓰쿠시마 신사나 섬에 있는 다른 종교 시설과 관련된 종교를 기원으로 두고 있지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민속 행사도 있습니다.

종교를 기원으로 두고 있는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한 행사가 간겐사이 축제(管絃, 일본어로 '간겐'이라 발음하며 일본 전통 관악기와 현악기를 의미)입니다. 간겐사이 축제는 음력 6월 17일 밤에 개최됩니다. 양력의 경우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에 해당합니다. 정교하게 장식된 배에 올라 관악기와 현악기로 고전 궁중 음악을 연주하면서 이쓰쿠시마 신사와 미야지마 섬 및 일본 본토의 신사 사이를 항해합니다. 간겐사이 축제와 관련된 전시품 중에는 축제에 참여하는 배의 축척 모형도 있습니다.

크기는 간겐사이 축제에 사용되는 배보다 훨씬 작지만, 가을에 개최되는 축제인 '다노모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농업이 금지되어 있던 미야지마 섬의 주민들은 한때 식량을 제공해 주었던 본토의 농민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작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다노모산'에서는 각 가정에서 만든 작은 배로 시노미야 신사에서 액막이 의식을 치른 후, 일몰이 지나면 이쓰쿠시마 신사에서 바다로 띄워 보냅니다. 이때 작은 등불을 밝힌 배들이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전시관 B 민속 행사

미야지마 역사 민속 자료관: 전시관 C

전시관 C에서는 자료관 부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흙벽 창고를 활용하여 미야지마 섬 목공예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관련 전시품들을 소개합니다. 목공예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발전하며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미야지마 섬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섬에서 자생하는 대부분의 나무는 다이묘(영주)의 소유물이었고 주민들에게는 벌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 목공예 장인들은 대부분의 목재를 본토에서 들여와 사용했습니다.

전시품 중에는 미야지마 세공(미야지마 섬의 전통 목공예)의 공예품 중 하나인 '샤쿠시(주걱)'도 있습니다. 밥을 섞거나 뜯 때 사용하는 주걱입니다. 샤쿠시는 1700년대 후반에 미야지마 섬에서 개발되면서 이후 일본 전국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섬세한 조각으로 디자인된 다양한 쟁반과 식기를 비롯해 기념품이나 선물용으로도 호평받는 대형 샤쿠시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공예품 관람 외에도 목공예 전통 물레와 그 밖의 도구를 통해 목공예의 제작 과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시관 C 목공예 전시품

미야지마 역사 민속 자료관: 전시관 D

현대적인 2층 건물의 전시관 D에서는 12세기 이후의 이쓰쿠시마 신사의 역사와 미야지마 섬에 관한 예술품, 토기 등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이쓰쿠시마 신사를 비롯해 미야지마 섬과 깊은 인연이 있는 무장 다이라노 기요모리(1118-1181)에 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요모리는 교토의 귀족 문화를 미야지마 섬에 들여오면서 도읍의 상류 계층에 이쓰쿠시마 신사의 격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헤이안 시대(794-1185)의 유력한 무장이자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영상 시어터에서는 기요모리의 공적과 미야지마 섬의 드라마틱한 역사를 영어 자막과 함께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야지마 섬과 헤이케모노가타리(※)와의 연관성을 소개하는 전시도 선보입니다.

(※)헤이케모노가타리: 12세기 후반의 다이라 가문과 미나모토 가문의 전투를 그린 영웅소설.



전시관 D 1층에는 전시품

2층에서는 미야지마 섬에 관한 회화와 지도, 사진, 가이드북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시 작품 중 대부분은 에도 시대(1603-1868)에 제작되었는데, 지도처럼 섬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병풍과 에도 시대에 미야지마 섬에서 상연된 가부키에 관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화가 우타가와 히로시게(1797-1858)와 그의 계보를 잇는 20세기 화가 가와세 하스이(1883-1957)의 우키요에(일본의 전통 목판화)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D 2층에는 전시품

미야지마 역사 민속 자료관: 대표 민가

보존 민가에서는 부유한 상인들의 생활상을 소개하고 있는 반면, 대표 민가에서는 일반 서민들의 생활상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대표 민가는 에도 시대(1603-1868)에 일반 서민들이 미야지마 섬에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를 전하기 위해 일반 민가를 복원한 것입니다. 미야지마 섬의 옛 민가는 길쭉한 모양새에 입구가 좁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슴이나 다른 야생동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나무문을 달았습니다. 미야지마 섬에 있는 대부분의 민가는 해안과 산에 둘러싸인 길고 좁은 지역에 나란히 줄지어 들어서 있었습니다. 평평한 땅이 제한적이었던 섬에 되도록 많은 민가를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표 민가에는 3개의 방이 있습니다. 입구 옆방은 작업장이나 가게로 사용했습니다. 중간 방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었고 이곳에는 가족의 신단을 설치했습니다. 안쪽 방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안쪽 방문을 열면 집 뒤편에 있는 안뜰에서 햇볕을 실내로 들이거나 환기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안뜰에는 화장실과 목욕탕, 부엌도 있었습니다. 이 방들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입구에서 안뜰로 이어지는 봉당을 걸어 그 옆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대표 민가 전시품